

【 해외금융뉴스: 미국 】

IMF, 2009년 아시아경제 예상보다 심각

- IMF는 2월3일 아시아지역의 2009년 경제 전망을 불과 두 달 전에 비해 절반 수준인 2.7%로 예측한다고 발표함.
 - IMF는 아시아경제에 대한 2개월 전의 예측치 4.9%를 2.7%로 수정 전망함.
 - 이와 같은 전망은 일본중앙은행이 1조 엔(112억 달러) 규모의 은행 부실자산 인수를 시행할 것이란 발표와 호주가 265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 및 1960년 이후 최저인 3.25%로 정책금리를 인하한다는 발표 직후에 나온 수치여서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옴.
 - 현재까지는 아시아경제는 세계경제의 하강속도보다는 다소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 대세를 이루었으나, 아시아경제 역시 급속한 경제악화 환경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줌.
 - 아시아경제는 특히 세계경제의 무역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향후 구조적인 조정과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.
- IMF는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 5%이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세계경제의 2010년 회복임.
 - 따라서 세계경제에 의존적인 아시아경제의 전망은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함.
 - IMF는 아시아경제는 예상치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경기호전과 악화의 두 가지 요인이 서로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밝힘.
-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2009년은 -4%, 2010년은 4%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2009년 2% 전망과 크게 대비됨.
 - IMF의 수정 전망에 대해 재경부는 IMF가 예상하는 것만큼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란 논평을 발표함.
 - 재경부는 경기하강의 골이 깊지 않을 이유로 경기부양대책의 단기적인 기대효과가 크고, 정부 예산이 다소 여유가 있음을 제시함.
 - 한편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이 2010년에는 빠르게 회복추세로 전환될 것이란 예측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과 정부당국자가 안도해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함.

(Financial Times 2/3)